



손끝에 닿는 천연의 결

엄선한 베지터블 가죽으로 완성한 다섯 가지 색상의 카드지갑.



클래식 탄 브라운

가죽 본연의 따뜻한 감성과 자연스러운 에이징을 담았습니다.



차분한 올리브 그린

숲의 고요함을 닮아 일상에 은은한 생기를 더하는 색조입니다.



깊고 단정한 네이비

단정하고 도시적인 감각으로 어떤 옷차림에도 자연스럽습니다.



버건디와 차콜 블랙

우아한 붉은빛의 버건디와 절제된 차콜 블랙의 모던한 조화.



일상을 완성하는 색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간결함 속에 장인의 정성을 담았습니다.